

개신교와 근대적 삶

-전라북도의 경험을 중심으로

마동훈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문화의 만남과 권력 관계

전라북도의 지난 1백여 년의 역사는 한 마디로 ‘근대화’의 역사였다.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서구적 근대화’의 역사였다.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서구의 과학기술이 도입되어 우리의 일상 생활의 일부가 된 것이 불과 지난 1백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 서구식 교육 제도가 들어왔고, 서구 의료 기관이 들어섰다. 서구의 대중매체와 대중문화가 들어왔다. 이들 모두가 현재까지도 우리의 ‘일상 생활’(everyday life)에서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오늘날 전라북도에 사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서구적(western) 삶의 방식’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서구적 삶의 방식이 ‘근대적(modern) 삶의 방식’으로 매우 빈번히 대치되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가 영위하는 근대적 삶의 방식의 모두가 ‘서구적인

것'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지난 1백 년 동안 우리의 근대적 삶 속에는 '서구의 것'과 '우리의 것'이 매우 복잡하게 중첩되고 공존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가 그동안 비판적 성찰 없이 받아들여 왔던 '근대적 삶'의 내부 속에 중첩, 공존하고 있는 서구의 것과 우리 것의 '혼성적 삶의 구조'(hybrid structure of everyday life)에 주목하고자 한다(Candini: 1993, pp. 2-5). 즉, 이 글은 지난 1백여 년의 근대화의 시기를 거쳐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구적인 것'과 '우리의 것', 이들 양자의 혼성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을 위한 시론의 목적으로 준비되었다. 우리 삶 속에서의 서구적인 것과 우리 것, 혹은 서양과 동양의 혼성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은 역사의 한 장을 정리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서양과 동양의 혼성 구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삶과 문화 현상에 대한 치밀한 이해와 진단을 위해 반드시 차분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연구 테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 문화와 다른 문화의 충돌에는 항상 양자간의 '권력 관계'(power relations)가 내재되어 있다(Grossberg: 1997, pp. 35-41). 곧, 개신교가 유입되면서 형성된 우리의 근대적 삶의 혼성 구조 속에는 서양과 동양의 권력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두 문화의 권력 관계는 이러한 혼성적 삶의 구조의 동일 연장선상에 있는 오늘날의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큰 차이 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개신교와 근대적 삶의 유입에 관한 연구는 바로 현재를 사는 우리 일상 생활 속의 권력 관계의 연구이다.

1백여 년 전, 서양 종교이었던 개신교가 전라북도에 출현한 것은 이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최초로 '서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중요한 사건이었다. 19세기 말 전라북도 지역의 개신교 선교를 주도하였던 미

국 남장로 교단 선교사들은 기독교 복음과 함께 서구 과학·의료 기술과 교육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 서구 과학·의료 기술의 유입은 서구 근대 과학 정신의 기반을 이루는 ‘합리성’의 유입을 의미하였다. 또한, 서구 교육 제도의 유입은 서구적 근대 시민사회의 근저를 이룬 ‘계몽’ 이념의 유입을 의미하였다. 서구적 합리성과 계몽이라는 이념적 기치는 동양의 한 변방인 전라북도 지역의 보통 사람들이 서구 그리고 서구적 삶의 방식,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영위해 온 근대적인 삶의 방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즉, 개신교의 유입 이후에 서구의 관점에서 우리의 근대를 해석해 왔으며, 그 해석을 바탕으로 한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영위해 왔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초기에 개신교의 출현과 함께 유입되었고 후에 일제 치하를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 모방을 강요당해 왔던 서구식 삶의 방식의 틀 속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 모두가 완전히 서구화되어 버린 것은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서구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우리적인’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여전히 많이 눈에 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에는 여전히 유교적, 무속적 자취가 상당 부분 공존하고 있다. 서구적 합리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조직과 공동체의 운영 원리들이 상당 부분 잔존하고 있다. 서구적 계몽의 이념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반시민 사회적 속성 역시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어떻게 그토록 이질적인 요소들이 그토록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을까? 외견상 확연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질적 종교들이 동일한 시간적, 지리적 공간에서 공존하고 있는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할까? 이 글은 부분적으로 역사 문헌에 의존하면서도,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현장 답사와 심층 인터뷰 결과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적 고안의 가장 큰 이유는 보통 사람들의 근대 생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이 절

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다. 따라서 이들의 근대 생활의 역사를 정리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와 함께 살아 온,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야기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들 보통 사람들과의 만남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한 인터뷰의 형식을 빌려 2000년 7월부터 8월까지 전라북도 전주와 완주군 구이면 평촌마을 그리고 부안군 위도에서 이루어졌으며, 모든 인터뷰 내용은 DV 테이프에 녹음, 보관하였다.”

2. 개신교 - 전라북도가 처음으로 경험한 '서양'

두 가지 서로 다른 전통의 만남

전라북도 전주는 조선 왕조의 출향지이다. 전통적으로 유럽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기도 하다.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 전통 유교 질서와 이에 기반을 둔 이 지역의 전통적 신분 제도가 빠른 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구질서의 붕괴 조짐은 영남 등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빨리 시작되었으며, 그 진행 속도도 매우 빨랐다. 또한 그 변화의 규모와 파급 효과도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대하였다는 점에 역사학자들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주명준, 1998; 노치준, 1998). 곧, 전라북도는 19세기 후반 통치 질서 붕괴 과정에서 대표적인 정치적 희생양 중 하나였다.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번듯하고 기름진 농경지는 통치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의 충당을 위한 매우 요긴한 징발원으로 활용되었다. 1880년대 지금의 서울 교동 인근의 어린이들이 불렀다고 전해 내려오는 구전 민요의 한 구절에서 당시의 통치 질서 하에

1) 인터뷰 자료는 “神의 歷史: 전라북도에서의 개신교의 유입과 일상 생활의 변화”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42분)로 제작되었으며, 이는 웹사이트 <<http://youngsang.chonbuk.ac.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국 시청자 영상전」(2000년)에서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의 전라도의 위상을 엿볼 수 있다

자식을 낳으면 벼슬을 시켜

전라도에 보내야지…

(동아일보 1922. 2. 14에서 재인용).

사대부가 자식을 낳으면 전라도로 가서 부귀를 누리게 하는 것이 당시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19세기말부터 계속되어 온 이 지역에서의 전통 유교 질서의 급격한 붕괴와 무관하지 않다. 유교적 질서에 바탕을 둔 통치 체제의 본격적인 붕괴가 시작된 과도기적 시기에 통치 세력의 보통 사람에 대한 착취는 더욱 강화되었고, 그 결과 보통 사람들은 권력 관계의 중심에서 더욱 소외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징후는 전라도 지역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김대인, 1996). 이러한 전라북도 19세기 말부터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이 새로운 물결의 중심에 개신교가 있었다. 당시 호남 지역에서는 군산과 전주가 개신교 등 서양 문물이 유입되는 중요한 관문이었다. 1893년 무렵부터 미국 남장로 교회에서 파견한 7명의 선교사에 의해 전라북도 지역의 개신교 선교가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 선교사의 모든 것은 전라북도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어서 지역의 전통 세력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았다. 전주 지역의 가장 오래된 개신 교회 중 하나인 전주서문교회(당시 전주서문의교회)의 당회록(1909-1913)과 여전도회 회의록(1936-1937)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19세기말 초기 개신교와 지역 전통 세력의 갈등의 몇 가지 단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 무렵에는 유럽의 반발로 미국 선교사와 교회가 서문 안에 못 들어가고 (서문) 밖에 자리잡은 것이다…(당회록, 1911. 10).

당시 한 유럽 집안 부인이 예수를 믿는다고 구타는 물론 문중에서 몰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핍박을 받았는데…(여전도회 회의록, 1936. 1).

다수 남자들의 의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서양 교회는 천민이 믿는 종교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남자들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조상을 모시는 일이었는데, 교회가 그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독교에 개종하게 되면 조상 숭배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안해했다…(여전도회 회의록, 1937. 3).

유교적 생활 규범과 민간 신앙에 젖어 있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은 낯선 이방인이었다. 낯선 이방인에 대한 전주의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의 당회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어린이들조차도 이방인들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이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대문을 치면서 웬 XX 이냐며 불을 질러 버린다고 위협한…(당회록, 1913. 1).

당시의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조선인의 근대적 의미의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이데올로기의 발현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보다는 오히려 타민족, 타종교와 ‘함께 살기의 어색함’ 혹은 ‘함께 산 경험의 부재’에서 파생한,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유교 질서의 붕괴와 개신교의 자리매김

개신교에 대한 전통 세력의 강력한 저항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조선 왕조의 몰락과 외세의 위협 속에 전통적 유교 질서는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이러한 유교적 통치 질서가 쇠퇴하는 분위기 속에서 개신교

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지역 종교 역사 연구자들간에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²⁾ 즉 전라북도 지역 개신교가 급속히 성장한 가장 중요한 배경 요인은 타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된 전통 유교 질서의 붕괴였다. 유교 질서가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면 기독교의 성장 기반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층민의 의식 속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전통 유교 질서는 이제 대안을 기다리게 되었고, 동학은 그 대안으로서의 자리매김에 결국 실패하였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의 의식과 이념 그리고 종교 측면의 대안 중 하나로 주목받게 된 것이 바로 개신교였다.

개신교는 전라북도 지역에 서구 의료 기술, 교육 제도를 함께 들여왔다. 선교사들의 의료 선교 활동은 민간요법이나 무속 전통 안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서구 의료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개신교가 설립한 서구식 교육 기관은 근대적 배움의 중요성도 함께 가르쳐 주었다. 당시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의료와 교육 서비스를 동반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이른바 네비우스(Nevius) 원칙(1893)에 입각한 개신교의 조선 선교 정책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기본 선교 전략이었다. 교회사를 전공한 김해연(1993)은 네비우스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① 상류 계급보다는 근로 계급을 상대로 전도함이 좋다.
- ② 부녀자 전도와 부녀자 교육에 힘쓰는 후세 교육에 좋다.
- ③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이는 2000년 8월, 전라북도 개신교 역사를 전공한 종교/역사학자들인 차종순(호남대, 한국교회사), 주명준(전주대, 한국사), 노치준(광주대, 종교사회학) 교수와의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바이기도 하다.

- ④ 한국인 교역자를 배출한다.
- ⑤ 성경을 속히 번역하여 회개하는 자를 얻는다.
- ⑥ 모든 종교 서적은 순수한 한글로 쓰도록 한다.
- ⑦ 자립하는 교회와 헌금하는 교인 수를 늘린다.
- ⑧ 동족으로 하여금 전도케 해야 한다.
- ⑨ 의료 선교사는 약만으로 치료하지 말고 기회를 이용하여 본을 보여야 한다.
- ⑩ 먼 지방에서 장기간 치료한 자는 방문해 주어야 한다.

네비우스 원칙에 의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선교를 담당한 남장로 교단측은 의료와 교육을 선교 도구로 활용하고 소외 계층인 평민과 여성을 중요한 소구 대상으로 삼는 선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오늘날의 전주 예수병원과 신흥학교 및 기전여학교 등은 이 시기에 남장로 교단의 선교 병원, 그리고 선교 학교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개신교 교육 기관이 이 지역 여성의 신분 상승에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학교를 통해 여성들도 글을 배우도록 하였으며, 남녀 불문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 즉, 신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글자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매우 자연스럽게 근대 교육의 수혜자가 되었다.

기독교와 함께 들어온 서구의 의료·교육 기관들은 본격적으로 전통 유교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생긴 틈새를 파고들었다. 그것이 교육이었다. 그 교육을 남자아이들만이 아닌 여자아이들에게도 시켰다. 동시에 여성들의 삶을 깨우쳤다. 이것이 한국 사회를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주명준,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이러한 과정에서 유교와 무속 신앙 모두 개신교와 갈등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이에 대한 전주 서문교회 김연수 장로와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대교인인 김성희씨는 제사를 안 지내서 아들과 갈라섰다. …갈등의 소지가 비교적 적은 종교가 무속과 불교이다. 절의 포교사 역할과 비슷하다. …어떤 집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하고 딸이 무속하고 절을 믿었고, 며느리는 교회를 믿었다. 그러나 서로 이해했다. 그런데 상갓집에 굿하러 갔었는데 잠깐 쉬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다(김연수,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개신교는 생태적으로 전통적 불교, 무속 등 다른 종교를 부정할 수 밖에 없는 절대적 구원의 종교였기에 이들간의 갈등은 더욱 첨예화될 수밖에 없었다. 전통 종교의 관점에서 개신교의 절대 구원관은 엄청난 도전이었으며, 이에 맞선 전통 종교의 응전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시기를 넘어선 현 시점에 이르러(1995년 센서스 자료), 전라북도 지역 개신교 신자의 비율은 이 지역 총 인구의 26%를 넘어섰다. 개신교 신자 비율이 지역 내 총인구의 12% 정도인 영남 지역보다 개신교가 두 배 이상 확산되었다는 이야기이다.³⁾ 이렇게 급속히 확산된 개신교가 기존의 다른 신앙체계와 종교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 개신교와 기존 신앙 체계간의 권력 관계는 보통 사람

3) 호남과 영남 지역의 개신교 전파 비율의 차이에 대한 논증은 교회사 및 선교역사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간주하는 연구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 점에 대한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논의결과는 호남 지역의 정치적 소외의 역사가 이 지역의 보통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서양 종교인 개신교에의 의존도를 높였으며, 양 지역의 선교 교단의 선교전략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있다(노치준, 주명준과의 인터뷰, 2000. 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구체적인 경험적 학술 논증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의 일상 문화사의 수준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관찰되는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전통 신앙 체계인 유교와 무속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였으며, 그 속에 새로운 종교인 개신교가 자리매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하였고 현재까지도 상반되는 두 종교 체계가 문화 양식으로 존재하는 마을 공동체를 주된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 그 첫째는 여전히 서원과 제각이 있는 연안 이씨 집성촌인 완주군 구이면 평촌마을이고, 그 두 번째는 바다의 신을 섬기는 떠뱃놀이의 자취가 전수되고 있는 부안군 위도의 섬마을 공동체이다.

3. 구이면 평촌마을 - 유교와 개신교의 갈등과 공존

보광서원과 연안 이씨 제각

전주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완주군 구이면 평촌마을은 50여 호의 농가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다. 평촌마을은 연안 이씨가 조선조 인종 이후 450여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곳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유교적인 생활 양식의 체취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다. 그 자취를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보광서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광서원(1720년 건립)은 마을 주민들에게 유교적 삶의 지침을 교육해 왔다. 향교와 마찬가지로 매년 음력 2월 13일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 제사를 모신다. 당시 서원은 전통 유교에 대한 교육, 계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유교적 질서를 보통 사람의 일상 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교육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1869년) 이후 유교 학문 전수의 기능은 많이 사라졌으나 위패를 모시고 마을 주민들이 제사를 지내는 일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마을의 남쪽 언덕에 위치한 연안 이씨 제각에서는 지금도 조상들에게 시제를 지내고 있다. 여느 곳과 마찬가지로 평촌리에도 무속, 민간 신

양이 있었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서 당산제를 올리기도 하고 여자들은 정갈한 마음으로 정화수를 떠 놓고 집안의 평안을 빌었다. 마을 사람들은,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 조사 당시에는 아무도 찾지 않고 있는 당산바위의 흔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집집마다 부엌에 있던 정화수 기억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

개신 교회의 등장과 마을의 변화

(1) 가족 생활

1972년, 평촌마을에 교회가 들어섰다. 보광교회는 동네 어귀 당산나무 아래에서 작은 천막 교회로 시작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유림 마을에 교회가 들어서는 일은 쉽지 않았다. 당시의 이야기를 초창기 보광교회 설립에 깊이 관여했던 이용섭 장로의 증언을 통해 정리해 보자.

보광교회 천막교회당이 들어선 해인 1972년에 40-50대 마을 어른 중 아홉 명이 두 달 사이에 돌아가셔서 일을 못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 돌아가신 분들이 모두 오랫동안 아프셨던 분들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은 교회가 생겨서 그렇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이용섭,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당시 30-40대이었던 마을 유림들은 나름대로 다른 할 이야기가 있다.

그 해에 일 년 동안 마을 사람 여덟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한 분을 장사 치르는 동안 또 한 분이 돌아가신 격이었다. 그 때가 교회 건물을 짓던 무렵인데, 당연히 우리가 못 짓게 하였고, 그래서 땅이 싸웠다. 자연히 동네가 시끄러웠다.… 결국 이 자리에 천막교회가 세워졌는데, 짓고 나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어 싸우는 게 일이었다(이동희,

이강녕,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마을에 들어선 교회 문제로 인한 가족 내 구성원간의 갈등은 바로 마을 전체의 문제로 번져 나갔다. 한 가족 내에서 개신교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지면서, 일상적 가족 생활의 곳곳에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였다. 가족 내 갈등의 가장 큰 이슈는 ‘족보’ 문제였다고 마을 사람들은 증언하고 있다.

기독교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집안에 족보가 필요 없다고 한다. 그래서 많이 싸웠다(이병섭,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마을의 연안 이씨 유림들이 중심이 되어 족보를 무시하는 개신교는 XX종교라고 하며 교회 못 가게 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개신교를 미신이니 마귀니 해서 아주 못마땅해했다. 유림에 속하지 않는 하층 마을 사람들도 교회 신자들을 은근히 그들의 적으로 생각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마을의 모든 일이 잘못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이용현,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족보 문제로 시작된 가정 내의 갈등의 불티는 가정 내의 여성들에게 옮겨 갔다.

마을 어른들은 그 전에는 부부간의 싸움이 거의 없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후부터 싸움이 생겼다고 했다(이용섭,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연안 이씨 양반 집 여인이 교회에 가는 것을 문중에서 좋아할 리가 없었다. 양반 집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가는 여성에 대한 폄박은 심

했다. 특히, 농번기 때에 교회에 가면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자들이 많이 반대했다(양순이,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마을의 유림들은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의 원인도 교회에서 찾으려고 했다. 교회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위상을 불필요하게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교회가 마을에 자리를 잡으면서 공동체 내에서 여성들의 위상에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가정에 갇혀 지내 왔는데, 새로운 서양 종교가 들어와서 이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것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다(이호희,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결혼 후에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것이 보통이지 않았나? 그런데, 교회에 오면 이름을 불러 주니 얼마나 반가웠겠는가? 아마도 유교는 남존여비를 중시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남녀평등의 종교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 ... 거기다가 여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글도 배우게 되고, 노래도 배우는 등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받게 되었음이 사실이다(이명선,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여자들의 위상이 높아진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세월이 지남에 따라 사상이 바뀌고, 문화가 변해서 그런 것이지(이동희,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개신교의 유입이 여성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서는 당시의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인정하였다. 예배 공동체가 가정 내의 여성의 위상의 제고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교회가 들어서기 이전에

는 상대적으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었고 따라서 가정과 마을에서 인정받을 길이 없었던 여성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할 말을 갖게 되었다. 그들의 실제 이름도 되찾게 되었다. 일부 유림들은 이를 반드시 개신교의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세상이 그만큼 바뀌어서라고 말하면서 애써 개신교의 영향력을 축소하여 이해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건 간에 여성의 위상이 달라진 것은 사실이었다.

(2) 제사

또 다른 갈등은 제사의 문제였다. 평촌마을이 전통적인 유림 마을이었기에, 제사의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특히 연안 이씨 집안의 제례를 중심으로 크게 대두되었다.

조상에 대한 제례 때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 교회에서는 우상 앞에 절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니까, 조상님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도 모임을 갖고 절은 하지 말자고 했다...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곧바로 절을 하지 않는 데 이런 것은 이해할 수 없다...우리가 조상에게 절을 안 하는 이유는 하늘 아래에서 두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지, 조상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다(이용현, 이용섭,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마을의 가정들이 대부분 핵가족화가 되고 모두 떠나니까 제사를 다 챙길 수는 없다. 요즘에는 3일 만에 탈복하는 집, 49일 만에 하는 사람 집 등 되는 대로 한다. 지금은 3년 간 모시는 집은 없다...자손들의 종교가 무엇이건 간에 고인은 전통적 유교 신자인데, 자손이 예부터 내려오던 것을 무시하고 기독교식으로 해버리니 너무 서운하

다(이호희, 이동희,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개신교 신자들은 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조상을 위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절을 연안 이씨 중심의 유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여기에 마을의 젊은이들의 도시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제례의 형식과 규모는 상당 부분 간소화되거나 축소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안 이씨 제각에서는 일 년에 십여 차례 이상 제례를 드리고 있다. 그러나 이전처럼 많은 자손들이 참여하지 못함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3)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는 전통적인 단일 공동체의 성격을 점차 벗어나, 교회 공동체와 유교 공동체가 병존하는 모습으로 점차 바뀌어 갔다. 초기에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을 정도로 반목이 심하였음이 사실이다. 마을 공동체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해 왔던 참여, 단결, 상부상조의 전통도 점차 약화되었다.

마을의 단결력이 약해졌다. 그쪽은 그쪽끼리 이쪽은 이쪽끼리 끼리끼리 모인다. 일요일에 행사가 있다고 하자. 기독교 신자는 오전에 교회를 가니까 오후에 행사가 있지 않는 한 오지 못한다. 그럼 일부 분이 불참한다(이병철,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마을이라는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서 부대끼며 사는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의 공동체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매일 싸우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이다. 서로 충돌이 없도록 지혜를 발휘하여 대화하며 공존하는 방식을 터득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1980년대 말 이후부터는 서로

상반되는 두 공동체의 공존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한 형제같이 지낸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돕는다.…서로의 행사를 방해하는 일도 이제는 없다. 서로 반목하지 않고 가능한 사이 좋게 지내려고 한다(송소암,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이 종교를 믿든, 저 종교를 믿든 사람 되기 마련이라고 나는 생각한다(이명선, 2000년 7월 인터뷰에서).

평촌마을의 민간 신앙도 위기를 맞았다. 당산바위의 영험함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는다. 굿도 하지 않는다. 마을의 무당이 이 곳을 떠난 지도 이미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상이 그만큼 변한 것이다. 지금의 평촌마을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거나 반목하지 않는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전통인 유교와 개신교는 여전히 내면적으로는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외양적으로는 자연스러운 공존의 모습 보인다. 다름아닌 마을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이다.

4. 부안군 위도 - 무속과 개신교의 갈등과 공존

섬나라 위도 - 띠벳놀이의 고향

부안군 격포 모항에서 배로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부안군의 위도면 대리마을. 위도는 진리, 대리, 식도 등 8개의 마을로 이루어진 섬이다. 한때 5천여 명이던 위도의 인구가 현재는 1천 5백 명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위도 사람들에게 바다는 삶의 터전이자 험겨운 싸움의 대상이다. 예측할 수 없는 삶에서 그들을 지켜 주는 것은 무속 신앙이었다.

위도나 전라남도 초도, 거제도 남도 같은 곳은 사머니즘이 지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이다. 한집에 3대 파부가 사는 집들이 수두룩했다. 남자가 없으면 살길이 막막하다. 그래서 이들은 자연의 신들에게 빌 수밖에 없었다(주명준,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바다에 대한 경외와 바다를 끼고 사는 절실한 삶의 흔적은 위도의 ‘띠벳놀이’라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음력으로 선달 그믐날, 초사흘날에 당집에 음식을 장만해 간다. 옛날에는 거기 가는 사람의 사람의 운수를 먼저 봤다. 당(집)하고 운수하고 맞는지 봐서 맞는 사람만 간다. 애사가 있으면 못 가고 정월 초이튿날부터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초사흘날 10시경에 화주하고 원하장, 부하장, 그분들이 음식을 가져가고 선주들이 거들어… 배 있는 데로 모두 간다. 자기 배 깃곳을 해서 서낭을 맞추어 서낭을 자기 배에 모신다. …내려와서는 띠벳놀이를 들어간다. …당산제를 지내는 이유는, 기원을 드리고 액을 버림으로써 마을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다(이종순,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위도의 띠벳놀이는 전국 민속예술 경연대회(1978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후 1985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띠벳놀이 전수관(1991년)이 건립되었다.

전수관은 말 그대로 띠벳놀이를 전수하는 곳이다. 마을에서 배우고 싶은 분만 온다. …띠벳놀이에 대해. 원당에 가서 총 읽기 음식 차리기, 징 치기, 장구 치기, 말은 입무에 대해… 띠배 만들고 소리하기를 배운다. …그런데 요즈음에 누구 이걸 배우겠다고 여기에 오겠는가?

젊은 사람들은 특히 여기에 관심이 없다. 외지 사람들이 구경하고 연구하러 가끔 들리는 정도지 뭐(이종순, 2002년 8월 인터뷰에서).

위도의 첫 번째 개신 교회

(1) 전기와 개신교

1929년, 위도 첫 번째 개신교 교회가 당시 가장 컸던 치도리 마을에 들어섰다.

1929년도에 양 장로라는 군산 쪽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장사 관계로 이쪽으로 오면서 전도하고 이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일제 당시에 신사 참배 관계로 외경이 억압하니까 중간에 교회도 없어졌다. 신사 참배를 안 해서...초기에 양 장로가 초가집 교회를 하나 샀다. 그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 아침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을의 평안과 안전을 빌러 뺨꼭이 들어왔다(안익춘,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대리 마을에서는 초창기 가정집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 뒤 예배당을 신축했다. 당시에 마을 사람 모두가 초신자들이었다. 지금까지도 그런 편이다. 모태 신앙을 지닌 사람도 전혀 없어서...교회 지을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다(최상순,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신도들이 신앙에 대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할머니는 귀신들려서 옷을 다 벗고 다녔는데,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간증도 하신다(안익춘,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분은 별로 없고...사업이 망했

거나 가족에 병이 있거나, 자기 신변에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 다니는 분이 많았다. 나도 교회 들어온 이유가 집사람이 귀신들려서… 신앙 동기가 거기서부터 생겼다(송영생,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아이들 낳고 신이 들려서 계속 죽게 생기다가, 치도리 위도교회 전도사가 교회 다니라고 했다. 위도교회 다니던 중에도 귀신이 떠나지 않아 정신이 나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십 년 전부터 신앙을 확실히 알게 되면서 괜찮아졌다(김말자,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1960년대 들어 위도의 마을들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도깨비의 존재는 잊혀졌다. 대부분의 섬 사람들은 바다에 더 이상 용왕님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절대 신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필요했다. 매일 험한 바다와 더불어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빈 자리를 채워 준 것이 바로 개신교였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의 경우,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개방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그러나 일단 개신교 문화 양식의 영향에 노출되었을 때, 기존 전통 신앙 체계가 받은 충격은 대단했다.…여전히 섬과 바다가 가진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의 주류 신앙 체계인 무속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했다.…이러한 시기에 개신교가 섬 깊숙이 끼친 영향은 매우 컸다. 그러나 전통 신앙이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었으며, 지금까지도 무속은 교회와 갈등, 경합하고 또 공존하고 있다(노치준,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2) 마을 공동체

교회가 들어서면서 마을에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의 속도

는 앞서 답사한 평촌마을보다 훨씬 빨랐다. 띠벧놀이는 무속으로서의 힘을 급격히 잃게 되었다. 1970-1980년대 띠벧놀이의 복원도 무속적 액땜의 기능을 점차 잃고, 단지 전통 무형문화재의 가치만을 지니게 되었다.

용왕님한테 비는 사람의 수는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반면, 교인들은 많이 늘었고 …점점 미신을 안 지키려고 한다(최상순,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띠벧놀이가 놀이라면 나도 찬성이다. 단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굿판을 벌이고 무당을 데리고 사당으로 가서 굿하고 이것이 놀이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무속인이 굿을 함으로써 배 사업이 잘되고 하는…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안익춘,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위도 띠벧놀이 전수자인 이종순씨는 개신교가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구심점이었던 띠벧놀이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음을 인정하고 못내 아쉬워한다. 그리고 지난 60년대말 이래 이미 마을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로 대체되었음을 인정한다. 결국 띠벧놀이는 개신교와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이질적인 종교적 의식이었고, 따라서 이제는 마을 공동체 내에 발디딜 데를 잃고 말았다. 무속 종교로서의 띠벧놀이는 없어지고 그 문화적 잔재만이 정부의 문화재 보호 정책에 힘입어 남아 있을 뿐이다.

교인은 많이 늘어 지금은 반절 이상이 교회에 나간다. 이 사람들이 띠벧놀이를 더 이상 안 한다. 그래서 인원 동원 때문에 힘들다. 몇 시간만 참여해 달라고 이장이 사정해 달라고 한다. …그 사람들은 그걸 마을 일로 생각 안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미신적인 행위로

결코 보지 않는 … 그런 차이 때문이다. … 당집도 이전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분들은 띠벳놀이를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를 안 해도 어른들이 뭐라고 하지 못하고 사정을 할 뿐이다. 원당에는 안 갈지라도 농악 치고 돌아다닐 때라도 협조해 달라고. 지금은 교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니까 행사가 약식이 되었다. 내가 봐도 지금은 여기에 전수관이 있지만, 우리 세대가 세상을 떠나면 띠벳놀이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종순,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현지 답사 기간 중에 섬을 지켜 주는 무속 신들을 모시는 당집을 찾아가 보았다. 오르는 길조차 희미해진 당집은 지금은 이전처럼 정성을 들이지 않아 물이 새고 있었다. 멋대로 자라난 무성한 풀들은 당집의 위상이 많이 약화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이제 위도의 띠벳놀이는 문화재이면서 마을 행사일 뿐이다. 당집의 신앙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3) 제사

개신 교회가 들어서면서 가정 내 구성원들간의 갈등의 씨앗은 역시 제사의 문제였다. 전통적인 집안 제사는 추도회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추도회에서 대표 기도 하는 신자들의 기도 내용에는 여전히 무속적 구복과 보호를 강구하는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부탁할 게 많지. … 바다의 날씨, 오늘도 안전한 조업을 위한 기도가 대부분이지 뭐. 귀신 쫓아 달라는 거 하고 … 사실 기도 내용은 예전에 당집에서 하던 거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단지 조상이나 용왕님이 아닌 하나님께 빈다는 것이 다르지 … (안익춘,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섬 사람들은 절대자가 누구이건 간에 그에게 전적으로 매달려 간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 전에 무속이 널리 퍼진 연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형식과 기도의 대상은 크게 바뀐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더 효험 있는 신인 개신교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젠 관여하지 않는다. 다 자기 방식대로 한다. 교회 식으로 하는 분들은 교회 식으로 하고 안 그런 분들은 제사 지내고…한 집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아니면 괜히 분쟁만 나니까(최상순,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한다. 일하는 것하고 절하는 것하고 난 상관없는 일이라고 보는데…(이종순, 2000년 8월 인터뷰에서).

5. 모순적 문화들의 경합과 공존

개신교가 전라북도에 들어오고 그 다음 1백 년. 오늘날 개신교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서 있는가? 구이면 평촌마을과 위도면 어촌에서의 답사와 인터뷰 연구 기간에 이른 작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현재 전라북도에서의 개신교의 빠른 교세 확장의 배경에는 이 지역의 소외의 역사, 한의 역사가 있다. 유교 질서의 붕괴, 전쟁의 경험, 정치권으로부터 소외된 역사가 그것이다. 이제 서구적 종교인 개신교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유교적 질서와 무속적 생활 양식과 공존하고 있다. 답사와 인터뷰 기간 이 두 마을의 곳곳에서 개신교와 유교, 무속적 일상 문화와의 갈등의 역사를 찾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종교로 인하여 나누어져 공존하고 있었다. 이제 전통은 갈수록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개신교 문화의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전통적인 것의 자취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지난 1백여 년 동안 서구에서 들어온 새로운 문화들. 이들은 우리 주위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서구적인 것도 우리의 것처럼 친숙해져 서구적인 것, 한국적인 것의 구분도 없어진 것은 아닌가? 아니, 지금 와서 이들을 일일이 분석하여 나누어 놓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동양과 서양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근대 생활사의 혼성적 삶의 구조의 원형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진단하기 위한 작업의 유용한 기초 연구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양과 동양이 만남으로서 발생한 새로운 권력 관계의 문제는 이 글의 중요한 화두였다. 두 마을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전통적 마을 공동체를 대체하고 있으며, 여성이 기존의 가정 내 권력 관계에서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의 서양과 동양의 만남은 어느 한편의 일방적인 우세라는 새로운 권력 관계의 출현을 야기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분명히 서로 경합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택하며 함께 혼성되어 사는 근대적 삶의 모습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한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대신, 새로운 개신교 문화 속에 그 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것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서양에 적응하고 있었다. 한국 개신교의 기복적 원형의 자취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이질적인 문화들의 한 종교 내에서의 공존을 보여 준 흥미로운 사례이다.

이 글은 서가 속의 종교사학자가 아닌,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현장을 취재한 다큐멘터리 작가의 시각에서 기술되었다. 한편, 이 글은 체

계 변동 중심의 사회 역사라는 거시적 영역을 다루는 사회학자가 아닌, 체계 속의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라는 미시적 영역을 관찰하는 문화사학자의 관점에서 기술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공식적인’ 역사가 아닌, 다분히 ‘비공식적인’ 마을의 역사, 보통 사람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관찰되고, 기술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부분의 인터뷰 결과를 그 내용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개신교 유입 당시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 체험을 가능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자 시도하였다. 현상의 치밀한 분석을 위한 사회과학적 논문이 아닌, 관찰 결과를 평면적으로 기술한 인문학적, 혹은 다큐멘터리적 이야기 서술의 형식을 고수한 것도 같은 이유이다.

이 과정에서, 관찰자가 평촌마을과 위도라는 두 가지 관찰, 분석 텍스트를 읽어 내는 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문헌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텍스트를 둘러싼 컨텍스트의 증충적 기술이 불가능하였음이 이 글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종교인 개신교가 전통 신앙 체계인 무속 및 유교와 만나는 접점에 사는 보통 사람들의 체험을 기술함으로써, 거시적 사회역사 기술을 보강하는 미시적 관찰,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문헌

- 김대인(1995), 「숨겨진 한국교회사」, 한들출판사.
 김해연(1993), 「한국교회사」, 성광문화사.
 노치준(1998), 「한국 개신교 사회학」, 한울.
 전주 서문의교회 당회록(1909-1913).
 전주 서문의교회 여전도회 회의록(1936-1939).
 주명준(1998), 「전북의 개신교 전래」, 전주대학교출판부.

Canclini, Nester Garcia(1993), *Transforming Modernity: Popular Culture in Mexico*,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Grossberg, Lawrence(1997), *Bringing It All Back Home: Essays in Cultural*

Studies, Durham & London : Duke University Press.

Ma Dong-Hoon(2002), Reconciliation between the East and West through Communication, presented to a theme session of the 52nd ICA(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ABSTRACT

Christianity and Modern Life
—Experience of Chollabuk Province

Ma, Dong-Hoon

History of Chollabuk province over last 100 years was that of ‘modernization’, more precisely speaking, that of ‘western modernization’, just as other regions were like in Korea. Western educational system, medical system, and western media and popular culture were introduced into this region of Chollabuk province in early 20 century. Now we are saying that we are living in accordance with the western style of everyday life. The life of modern Koreans, however, cannot be accurately and precisely explicated only by the things from the west. “The western” and “the ours” coexist throughout the last 100 years’ history, in highly hybrid forms.

This paper put the primary focus upon the “hybrid structure of everyday life”, that canclini(1991) has ever mentioned in his argument upon “Hybrid Culture.” Fur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ield of power relations between two contested cultures: the west and the east, in conjunction with the inception of western christianity, and its power relations with confucianism and shamanism; and also in conjunction with the inception of the western, and the power relations among the people at various level.

This research highly relied upon the oral, narrated history of the existing local ordinary people caught through the research method of

ethnographic observation, as well as some existing historical documents. The ethnographic observation and interview researches originally aiming at a television historical documentary have been conducted mainly in two regions: first, Pyongchon village of Wanju near Jeonju, where a strong confucian tradition still remains; and second, Wi-do of Buan, where a tradition of shamanism still exists.

This anthropological explication based on ethnographic observation reveals that the cultures are contested, but in the long run coexisting, rather than they come to the stage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The codes of the conteted cultures' coexistence are largely seen in hybrid structure of the pre-modern and the modern.